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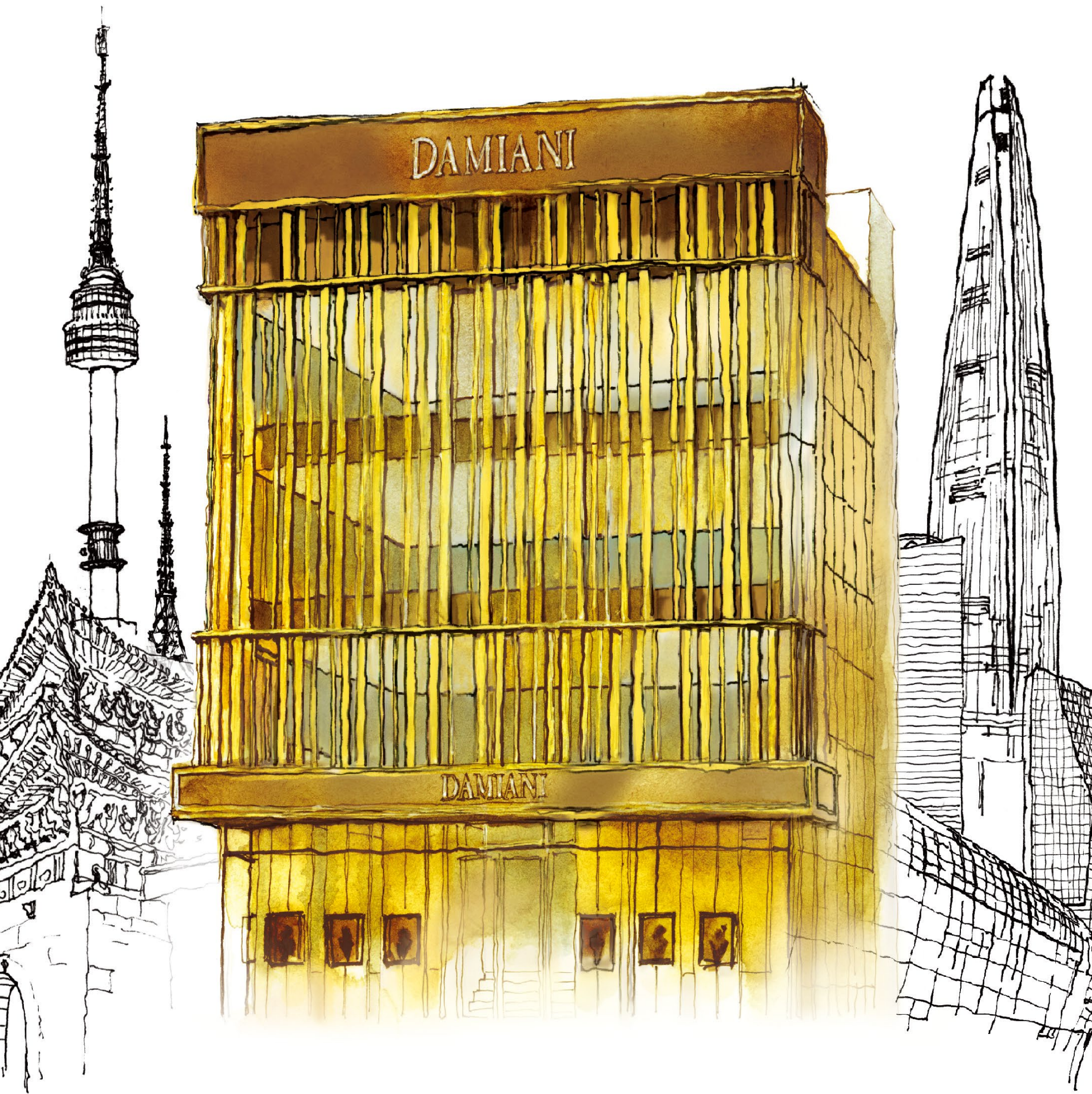
2026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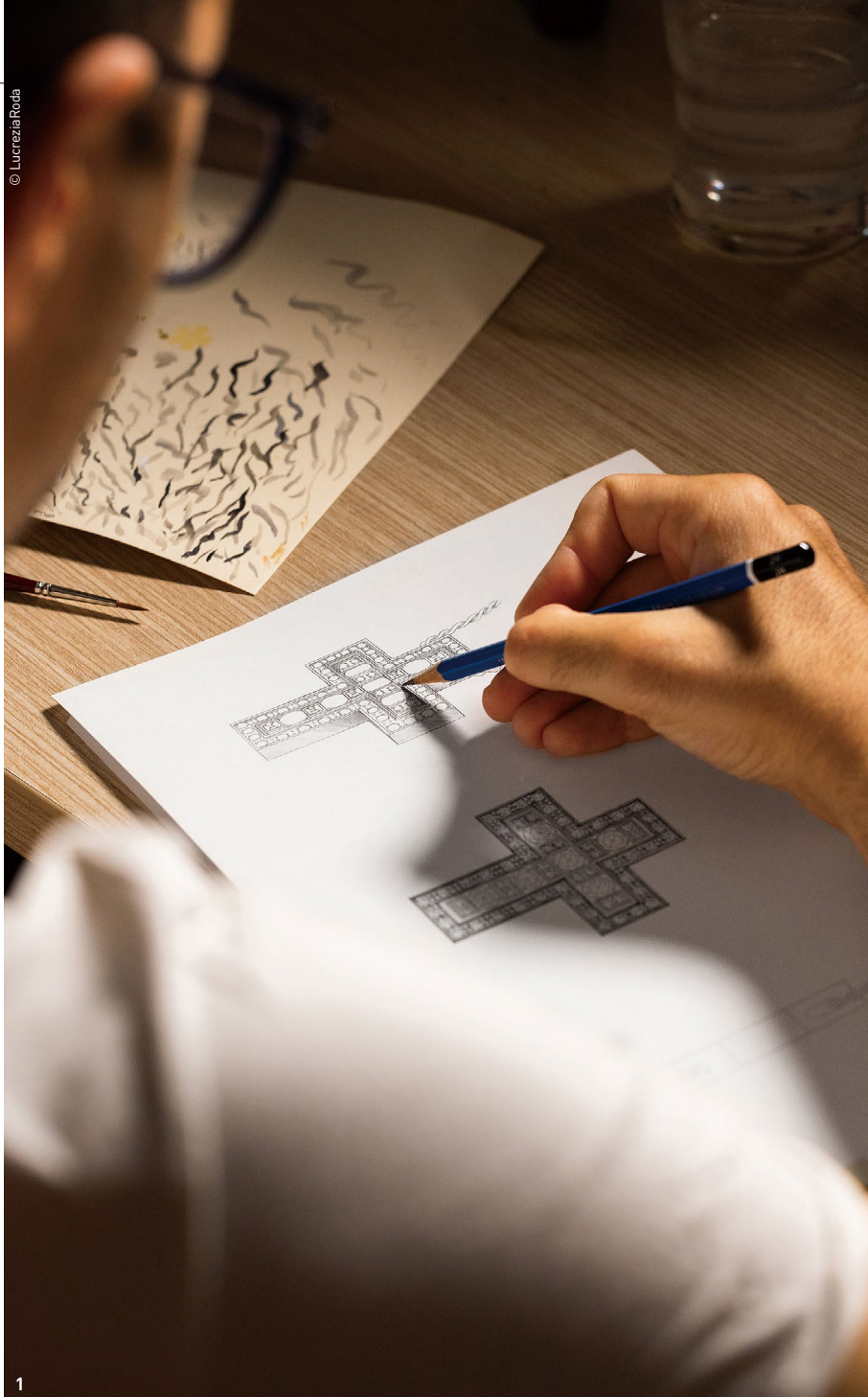
A Legacy from an Italian Family

다미아니(Damiani)의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주얼리의 중심지, 이탈리아 발렌차(Valenza)에서 시작된 특별한 가족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다미아니는 숙련된 장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주얼리를 통해 귀중한 노하우를 계승해오고 있다.

다미아니의 여정은 1924년, 창립자인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Enrico Grassi Damiani)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탁월한 창의력과 정교한 기술로 이탈리아 왕실과 저명한 귀족 가문을 매료하며 주얼리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다미아노(Damiano)와 그의 아내 가브리엘라(Gabriella)는 아틀리에에서 본격적인 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며 브랜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다미아노는 전통적인 수공예와 현대적 생산 기법을 완벽히 결합해 브랜드의 확장과 성장을 이끌었다. 이후 세 자녀인 귀도(Guido), 실비아(Silvia), 조르지오(Giorgio)는 부모의 유산을 기반으로 다미아니를 가족 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럭셔리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글로벌 유통 및 커뮤니케이션을

조화롭게 결합해 다미아니를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오늘날 다미아니는 창립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유일한 글로벌 이탈리아 주얼리 브랜드로 남아 있다. 무려 1백 년 이상 3대에 걸쳐 주얼리업계를 선도해온 이들은 이제 소중한 유산을 4세대에게 전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경영 체제를 고수하고 유지해온 덕에 다미아니는 스톤에 대한 자신들만의 노하우와 제작 기술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었다. 다미아니의 모든 주얼리는 하이 주얼리부터 파인 주얼리까지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로 제작된다. 또 모든 제작 공정이 인하우스로 이뤄지며 디자인부터 소재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조르지오 다미아니가 직접 관리하고 승인한다. 그는 세계 각지의 저명한 원석 공급 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

© Lucrezia Roda



1

“

가족이란 사랑과 존중, 열정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회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가족이 곧 회사이고, 회사가 곧 가족입니다.”

by 귀도 그라시 다미아니(Guido Grassi Damiani)

어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이는 다미아니의 가장 큰 강점이자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점이기도 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며 하이 주얼리 메종으로 무려 1백 년의 시간 동안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 때문에 다미아니 주얼리에는 특별함이 있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사랑, 존중 등 다른 주얼리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귀한 품격과 가치가 담긴 덕분이다.

전통 이탈리아 주얼리의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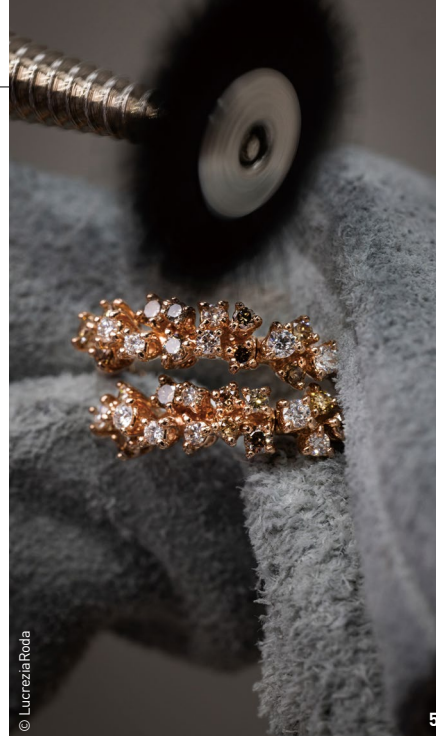
다미아니는 1백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이탈리아 주얼리 메종이다. 다미아니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이탈리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과거 수공예 장인들의 집결지였던 발렌차 지방에서 시작된 브랜드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이탈리아 발렌차는 수공예, 특히 오랜 금세공 전통을 지켜오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때문에 다미아니의 주얼리는 오랜 수공예에서 시작된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 또 다미아니 주얼리의 세밀한 디테일, 뛰어난 퀄리티는 모두 숙련된 장인들의 손길에 있기에 가능했다. 여기에 좋은 소재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재해석하는 탁월한 능력, 창의성, 전통 기법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노하우 등이 더해져 지금의 다미아니

를 있게 했다. 그중 창의성은 다미아니의 DNA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다. 다미아니는 주얼리를 제작할 때 단순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면밀히 관찰하며 얻은 통찰력까지 주얼리에 반영하며 주얼리의 아름다운 물론 실용성, 착용감, 내구성까지 고려한다. 그뿐 아니라 누가 착용하는지, 어떤 때 착용하는지 등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고려하기에 누구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다미아니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오랜 역사를 이어 나가는 것은 역사가 짧은 주얼리 메종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시간을 거치며 얻은 경험은 다미아니만의 유산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미아니 패밀리에 끝없는 열정이다. 열정은 다미아니의 모든 마스터피스에 깃든 에너지이자 오늘날까지 3대에 걸쳐 다미아니 가문을 이끌어온 영감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전통을 추구하는 주얼리 메종에서 열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을지도 모른다. 다미아니 패밀리의 3대로 다미아니 메종의 체보를 잇는 조르지오 그라시 다미아니(Giorgio Grassi Damiani)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항상 관습이 부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

1 다미아니를 대표하는 벨 에포크 컬렉션의 주얼리를 스케치하는 모습. 2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의 뒤를 이어 가업을 계승한 아들 다미아노. 3 다미아니의 명맥을 잇는 다미아니 3세대인 귀도, 실비아, 조르지오. 4 다미아니의 주얼리는 모두 장인의 손에서 직접 수공예로 제작된다. 5 다미아니의 대표 컬렉션인 미모사 컬렉션의 제작 모습. 6 장인이 직접 수작업해 다미아니 주얼리를 제작하는 모습. 7 마르게리타 주얼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모습. 8 벨 에포크의 아이코닉한 벨 에포크 밀 컬렉션 링.

다. 누군가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야 말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도전해야 할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탁월함은 곧 우리의 열정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오랜 시간 동안 창립자부터 그의 가족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유일한 브랜드로서 다미아니는 회사를 세운 가족, 브랜드의 독창성을 이루는 창의성, 이를 이끄는 열정과 노하우까지, 모두 이탈리아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무엇보다 다미아니의 놀라운 작품을 탄생시킨 장인 정신과 예술적 영감 또한 이탈리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에 걸쳐 하나의 주얼리 메종이 자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장 이탈리아적인 가치를 지켜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덕분에 다미아니는 주얼리를 창조하고, 디자인하며,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초월해 예술성과 장인 정신으로 명품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미아니가 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드(Diamonds International Awards) 역대 최다인 18회 수상하며 럭셔리 주얼리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이유다. 다미아니는 앞으로도 이 찬란한 유산을 계승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조화롭게 부응하며, 전통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 Lucrezia Roda



5



6



7



8

시대의 아이콘

다미아니 주얼리는 네 가지 대표 컬렉션으로 이뤄진다. 이 컬렉션은 하나하나 다른 성격과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매우 큰 장점이 된다. 착용자가 원하는 기분, 상황, 스타일 등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얼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빛을 발휘한다.

MIMOSA

미모사(Mimosa) 컬렉션은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의 아들 다미아노에 의해 탄생했다. 그는 미모사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여성인 아내 가브리엘라와 딸 실비아를 담고자 했다. 그는 그녀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영감을 받았고, 이에 경의를 표하고자 미모사 컬렉션을 제작했다. 미모사 컬렉션은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한 존경과 찬사의 의미로 확대되었다. 미모사 컬렉션의 디자인은 식물인 미모사에서 영감을 받았다. 미모사는 모든 기후 조건에서 꽃을 피우는 관목으로, 강인한 여성성을 상징하기에 완벽한 식물이다. 밝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지닌 이 식물은 매년 봄 다시 피어나며, 특히 유럽에서는 국제 여성의 날과 연관되어 여성성과 더욱 깊이 연결된다. 즉 미모사 컬렉션은 여성의 내면적 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로 제작한 미모사 컬렉션의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네크리스는 가득 찬 공간과 빈 공간, 빛과 그림자의 교차를 통해 완성된 완벽한 모자이크가 돋보이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다.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스톤을 정교하게 세팅한 주얼리는 미모사 꽃의 구조를 연상시킨다. 발렌치의 금세공 장인들이 세심한 연구를 통해 탄생시킨 미모사의 디자인은 '무질서 속 질서'를 표현하며, 주얼리에 입체감을 부여해 더욱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빛난다.



“우리는 항상 관습이 부여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탁월함은 곧 우리의 열정입니다.”
by 조르지오 그라시 다미아니(Giorgio Grassi Damiani)

1 아내 가브리엘라와 딸 실비아의 강인한 여성성을 담은 미모사 컬렉션의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
2 우아함과 강인함을 모두 지닌 미모사 컬렉션의 링.
3 다미아니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컬렉션인 마르게리타의 이어링과 네크리스, 링.

MARGHERITA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왕, 사보이의 마르게리타(Margherita of Savoy). 그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 그리고 독보적인 개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다미아니는 그녀를 뮤즈로 마르게리타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컬렉션의 이름이 된 국화(데이지)는 그녀를 상징하는 꽃이다. 1920년대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는 패션과 주얼리에 대한 그녀의 열정에 깊은 영감을 받아 직접 디자인한 주얼리를 헌정했다. 이 주얼리는 마르게리타 컬렉션의 시조가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확장되었다. 데이지는 서구 전통에서 순수한 사랑과 진실된 감정을 상징한다. 그뿐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가족 간의 사랑, 또는 깊은 우정을 표현하는 꽃이기도 하다. 또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놀이적 해석으로도 사랑받았다. 마지막 꽃잎이 상대의 진심을 드러내는 셸렘의 상징인 것. 최근에는 중앙에서 진지한 사랑의 서약과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꽃으로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마르게리타 컬렉션은 데일리 주얼리부터 예술적인 마스터피스에 이르기까지, 데이지의 조화롭고 우아한 형태를 고스란히 표현했다. 중앙에는 다이아몬드나 컬러 스톤이 자리하고, 이를 아름답게 세공한 꽃잎이 감싸며 독특한 매력을 더한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로 제작된 다양한 주얼리는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네크리스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BELLE ÉPOQUE

서구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꼽히는 파리의 문화 예술 황금기를 가리켜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고 부른다. 20세기 초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황금기는 과학적, 문화적 진보를 이끌었으며, 새로운 예술 형태인 영화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이 찬란한 시대의 에너지와 화려함에 깊이 매료된 창립자 엔리코 그라시 다미아니는 파리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스케치로 옮겼고, 이는 벨 에포크 주얼리로 재탄생했다. 특히 영화에 매료된 엔리코는 영화 필름의 프레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완성했다. 필름의 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프레임의 모습을 원과 사각형의 조화로운 교차로 재현했고, 이는 주얼리에 역동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벨 에포크 컬렉션의 링, 브레이슬릿, 이어링, 네크리스는 장인 정신에 대한 헌사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를 정교하게 세팅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여기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돋보이는 외부 프레임을 더해 주얼리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컬렉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벨 에포크 크로스 네크리스는 2개의 크로스가 하나로 결합된 독창적 디자인의 움직임은 주얼리로, 각각 따로 착용할 수도 있다. 2개의 역동적인 요소는 결합과 분리를 통해 시너지를 일으키며 주얼리의 화려한 광채를 더욱 극대화한다.



4 문화 예술의 황금기였던 '벨 에포크'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벨 에포크 컬렉션의 링.
5 다미아니의 헤리티지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링.
6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릴 컬렉션 네크리스.
7 메종을 대표하는 아이콘적인 아이템, 벨 에포크 컬렉션의 크로스 네크리스.
8 하트 모티브와 다채로운 컬러감이 돋보이는 벨 에포크 컬렉션의 네크리스와 이어링.



BELLE ÉPOQUE Reel

벨 에포크 컬렉션이 탄생한 지 거의 1세기가 흐른 2022년, 다미아니에서는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을 출시한다. 무려 1백 년 동안 세대에 걸쳐 역사의 흐름에 발맞춰온 다미아니만의 열정과 창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미아니는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닮은 역동성을 담아내 중앙의 '릴'이라 불리는 원과 사각형 모티브가 돌아가도록 특별 세공했다. 이를 통해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역동적인 현대사회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론칭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은 많은 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파격적인 움직임과 모던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감성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사랑받으며 다미아니가 1백 년 동안 메종을 운영해올 수 있었던 이유를 증명하는 컬렉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다미아니는 원과 사각형이 무한히 돌아가는 벨 에포크 릴 컬렉션과 같이 그다음 세대까지 헤리티지를 지키며 혁신적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주얼리 메종으로서 가치를 이어갈 것이다.

문의 02-6204-1924 에디터 성경민





MIMOSA



MARGHERITA



(왼쪽 페이지 위) 미모사 컬렉션은 창립자의 아들, 다미아노가 자신의 아내 가브리엘라와 딸 실비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여성에 대한 깊은 존경과 찬사를 담아 탄생시켰다. 어떤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미모사에서 영감받아 꽃의 구조적 실루엣을 표현한 미모사 플렉시 이어링, 유연한 구조의 미모사 플렉시 네크리스, 다이아몬드를 입체적으로 세팅한 크로스 펜던트가 특징인 미모사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아래) 다이아몬드 세팅 미모사 플렉시 이어링, 다이아몬드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 미모사 링, 다이얼과 베젤에 파베 세팅과 새틴 밴드의 조화로 스톤의 광채를 극대화한 미모사 워치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오른쪽 페이지 모델 컷)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여왕의 우아함에서 영감받아 그녀를 상징하는 꽃, 데이지를 형상화했다. 가족과 연인, 친구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로맨틱한 디자인의 마르게리타 싱글 이어링, 화이트 골드에 크고 작은 데이지 꽃 세 송이를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마르게리타 링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문의 02-6204-1924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이어링.

(위부터 차례대로) 마르게리타 옐로 골드 & 시트린과 다이아몬드 링, 마르게리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마르게리타 핑크 골드 & 에머시스트와 다이아몬드 링.

미모사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링.

미모사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이어링.

미모사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DREAMY & DAZZLING

흔들림 없이 깊고 우아하다. 쉬이 눈을 땔 수 없는 다미아니 주얼리를 마주할 때.
PHOTOGRAPHED BY **PARK HYUN GOO**



벨 에포크
옐로 골드 크로스
네크리스.



벨 에포크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크로스 네크리스.



벨 에포크
말라카이트 하트
네크리스.



벨 에포크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크로스 네크리스.



BELLE ÉPOQUE



벨 에포크 릴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링.



(왼쪽부터 차례대로)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링,
벨 에포크 핑크 골드 링.



벨 에포크 릴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벨 에포크 릴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BELLE ÉPOQUE REAL



에디터 김하얀
헤어 박규빈
메이크업 정지은
모델 자나이나
어시스턴트 김보민

벨 에포크 컬렉션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스스로 화전하는 릴 디자인을 고스란히 반영한 벨 에포크 릴 컬렉션. (오른쪽 페이지 위부터) 후프 디자인의 벨 에포크 릴 이어링, 사이드를 다이아몬드로 영롱하게 채운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벨 에포크 릴 링, 핑크 골드 소재 벨 에포크 릴 링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나**. (아래) 오른쪽에 착용한 옐로 골드의 원형과 사각형을 선세하게 연결한 벨 에포크 릴 브레이슬릿,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릴 브레이슬릿, 왼쪽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세팅 핑크 골드 벨 에포크 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나**. (왼쪽 페이지 모델 컷)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은 크로스 펜던트의 벨 에포크 네크리스, 중지 착용한 원형과 직사각형을 교차해 간결하게 담은 벨 에포크 브라이덜 밴드, 약지에 착용한 다이아몬드 세팅 벨 에포크 브라이덜 인터티 링, 핑크 골드 소재 벨 에포크 릴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나**. 문의 02-6204-1924



1, 2 주얼리의 섬세한 광채와 빛을 표현한 다미아니
까사 청담의 외관.
3 다미아니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원형과 직사각형을
입체적으로 장식한 벽면.
4 엠버 컬러 유리로 제작된
베니니 샵드리에. **5** 유리공예
브랜드 베니니에서 까사
다미아니 청담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글라스 월.

6 하이주얼리와 브라이델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2층 전경. 7 부티크를 찾은 고객에게 편안하게 주얼리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2층 VIP 룸. 8 초형기 가득한 오브제로 채운 1층 라브리브리 월. 9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서자마자 메종을 대표하는 다채로운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1층.



The image shows the exterior of the Damiani boutique in Milan. The storefront features large glass windows and a central entrance. Above the entrance, the word "DAMIANI" is displayed in large, white, serif capital letters. The windows are framed by dark, vertical metal bars. Inside the windows, several jewelry displays are visible, including necklaces and pendants. The interior of the boutique is visible through the central glass door, showing a modern, minimalist design with a large, ornate chandelier and a display case. The ground in front of the boutique is paved with light-colored tiles.

STYLECHOSUN.COM 대표 박정은 | 편집장 김유미 | 파서·뷰티 디렉터 서정민 | 에디터 김현아 | 디자인 나스쿨메타 | 교열 이정화 | 수정 박민정 | 광고 마케팅 박영희, 강준석, 이경희, 유은혜
제작 강철주 | 제무 조영환 | 영업 최인영 | 기획 박지연 | 사진 김태우 | 촬영 (주)스타픽스 | 스타일링 (주)스타픽스 | 헤어 (주)스타픽스 | 메이크업 (주)스타픽스 | 모델 (주)스타픽스 | 1100 가사 관리 문의 02-749-46865

DAMIANI



I.N wears the Belle Époque Collection

Handmade in Italy since 1924